

사설

대중공사 선례 남긴 정책토론회

조계종사상 처음으로 총무원장 후 보건의 합의에 의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대선의 영향이거나 세속적 방식의 토론문화를 승가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순전히 부지의 소치다. 차별을 두지 않는 토론 문화는 불가의 오랜 전통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실종됐던 전통의 복원이자 여법한 대중공사였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려는 노력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른 바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정보 사회에서 소통의 부재는 고립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관심있는 불자라면 본지의 인터넷판으로 토론회의 전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실제로 비구·비구니 이 부중에 의해 운영돼 온 종단이 그야말

로 사부중의 공의에 의해 운영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정보 사회에 대응한 새로운 종단의 출범을 예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종회의원과 선거인단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간접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대중을 상대로 토론을 했다는 점도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투표권자에 한정된 음성적 투표 활동보다는 대중을 상대로 정책을 밝힘으로써 선거인단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의지 천명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인단은 소속 사찰뿐 아니라 재적 신도의 심증을 헤아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정책 토론회가 집요으로 일목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분위 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새만금 사업 재검토해야

10년 넘도록 무분별한 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아온 새만금 간척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전수 발언이 그 진원지인데, 노 당선자는 지난 11일 전라북도 국정토론회에서 새만금 간척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농지로 개발하는 데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의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 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정보통신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밀었다.

새 정부 출범의 의미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관행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재평가한다는 데 있다. 새만금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 보전에 대한 고려는 무시된 채 지역주민들의 발전 욕구를 표로 바꿈으로써 시작되었다. 87년 김영삼 후보는 새만금을 부산만큼 크게 발전시

키겠다고 했고, 노태우 후보도 새만금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 등은 군장산업단지과 중복투자라며 반대,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 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에서는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노 당선자의 발언은 그 동안 갯벌의 파괴와 농지 확보의 무모한 사업 목적, 썩은 물을 가두는 담수호로 인한 서해안의 오염 등 환경단체와 종교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인수위의 구성과 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녹색 섹터'가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

스님·재가자 함께 강원교과목 원전 독과 '서울 불교전문강당' 개설

2년제 8개과정 스님 40·재가자 25명...법륜사서 3월3일 개강

구족계·오계 수지자로 수강자격 제한

승가 재교육·경전 대중화 기여할 듯

스님과 일반인들이 함께 전통 강원 교과목을 공부하는 강좌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치문, 도서 등 사집과정에서부터 법화경, 전등록 등 수의과정까지 강원도의 전 교과목을 원전으로 강의하는 '서울 불교전문강당'을 개설하고, 오는 3월3일 첫 강의를 시작한다.

서울불교전문강당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스님과 재가자들이 한 자리에서 원전을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가불자들이 강원도의 교과목을 스님들과 함께 공

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를 통해 경전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원은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강원이 아닌 동국대나 중앙승가대, 선원 등의 종단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하고 구족계를 받은 스님들이 전통강원의 교과목을 배울 수 있어, 승가의 자질 향상 및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과정은 2년제 4학기 8개 과정으로, 매 학기마다 2개 과정씩

강의가 진행된다. 올해는 초발심·치문·도서 등 제1과정을 시작으로 절요·서장·선요를 교과목으로 하는 제2과정, 금강경·능엄경의 제3과정, 원각경, 대승기신론의 제4과정 강좌가 이뤄진다. 내년에는 제5·6과정으로 화엄경, 제7과정은 법화경, 마지막인 제8과정은 전등록과 선문연송 강의가 진행된다. 매 과정의 교육기간은 2개월이다.

모집인원은 스님의 경우 40명(구족계 수지자, 일반인)5명을 수지한

불자는 25명으로 모두 65명 내외이며, 수강신청자는 교육원의 수강 자격 심사를 거쳐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강의시간은 매주 월·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10분까지며, 장소는 서울 시간동 법륜사다.

강사는 교육원장 무비스님을 비롯해 지오(해인사 강주) 무관(전해인사 강주) 스님이 맡게 되며, 매 과정 강좌와 함께 논강도 준비하고 있다.

스님의 경우 2학기 이상 이 강좌를 수강하면 당해연도 주지연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99년 이후 구족계 수지자인 경우에는 4개 과정 이상 수료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중 일정시간 직능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비는 스님의 경우 1학기당 30만원, 일반불자는 50만원이며, 이달말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 (02)732-4922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7월20~25일 참여불교 세계대회

조직위 발표 6일 동안 용인 삼성생명 휴먼센터서

공동위원장에 법륜스님·박광서 대표

2003년 참여불교세계대회가 7월 20~25일 국내·외 스님 및 재가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삼성생명 휴먼센터에서 열린다. 참여불교 세계연대 한국조직위원회는 11일 정토회 지도법사인 법륜스님과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

는 한편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참여불교 협력과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기초강연과 8개의 분과토의를 통해 공동실천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21일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불교'를 주제로 워크숍 개최하고, '시대

적 과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불교'를 주제로 22일 토론을 벌인다. 23일에는 불자들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이 담긴 성명서 채택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의 대중강연도 마련된다.

박광서 조직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참여불교 단체들간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와 연대를 모색하며, 한국의 참여불교에 대한 관심 고조와 불교의 대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불교계, 민영교도소 참여 이견

"예산없다" "사업 타당성부터 따져야"

법무부가 9일 기독교계 인사들이 결정한 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위탁계약을 체결, 2005년 기독교계의 첫 민영교도소 출범이 확정되면서 불교계의 참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참여여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고, 예산확보도 쉽지 않아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이다.

자유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상당수 교계 관계자들도 "기독교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참여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사업타당성까지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문제와 관련, 조계종은 2001년 11월 본·말사와 불자들의 동참을 요청하고 투자설명회까지 개최했으나 참여자가 없어 무산됐다. 한명우 기자

국제불교교류 강화

종단협 올 사업계획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국제 불교교류와 남북불교 교류 활성화를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13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11월 중 일본에서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 개최를 비롯해 △한국 불교 해외 소개 웹사이트 구축 △삼일절 남북합동법회, 6·15, 8·15 남북 통일법회 봉행 △부처님 오신날 남북 템플스테이 여행 등을 추진한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주지 평균수령 27.3세

상주승려 2명 이내 전체 사찰의 60%

컴퓨터·인터넷·팩스이용 41.9%

조계종 사찰 주지들의 평균 연령과 학력, 그리고 사찰 운영 현황은 어느 정도일까.

이번에 교육원이 발표한 본·말사 주지 8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연령은 27.3세, 평균 세수는 48.3세로 나타났다. 10명중 7.5명이 강원을 이수했고, 세속의 대학 이상을 졸업한 스님은 50%를 웃돌았다. 주지 재임은 평균 9.08년이었다.

사찰에 상주하는 대중승려 수는 평균 3.63명이었으며, 전체 사찰의 60%가 2명 이내였다. 사찰당 평균 종무원 수는 2.94명이었으며 종무원이 한 명도 없는 사찰도 11.6%나 됐다. 또 사찰의 41.9%가 컴퓨터, 인터넷, 팩스 등의 정보기기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찰유형은 공할 64.8%, 사설사암 35.2%로 공할이 두 배 가량 많았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스님도 노후걱정이라니...

중국 관정큰스님 초청 정토선 대법회

관정큰스님은

7세에 출가하여 36년간 화두선을 수행하여 이미 삼매수용의 경지에 계셨으며, 삼매수용 중 관세음보살님의 인도로 극락세계에 가셨다가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옵고, 극락세계의 수행법인 정토선을 사바세계에도 널리 펼쳐서 불법을 중흥하라는 부촉을 받으셨으며, 화두선과 정토선을 실질적으로 수행 비교된 결과론적인 수행방법이 이 정토선입니다.



● 관정스님의 약력 ●

육조혜능대사로부터 청원행사 스님으로 내려오는 동운종48대 법맥을 이은 전법 제자이며, 허운대사의 정법안장을 이은 중국의 큰스님이며 현재 중국 북경선적수암에서 주석하고 계십니다.

달마조사의 조사선으로부터 6조 혜능조사 이후의 화두선으로 이어져오며 많은 조사님들이 전성대로 하셨으나 근기가 약한 말법시대인 지금은 화두선으로 자력견성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수행자 모두가 이미 체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자력에 불력의 가피를 더한 정토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불자의 구경복적은 성불이며 보제중생입니다.

제망의 스님께서는 근기에 맞고 쉬운 청토선의 가르침 법회에 동참하실 것을 권합니다.

첫째, 우리근기에 맞기 때문에 자력에 가피를 더하여 견성이 쉽고 속득성취하며 둘째, 상·중·하 세가지의 방법중 선택하여 수행하면 누구나 염염불매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셋째, 견성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육도윤회를 벗어나 왕생정도하게 됩니다.

법회 일시

- ◇ 일 시 : 불기 2547(2003)년 2월 21일 금요일(음 1월 21일) 정오 12시
 - ◇ 장 소 : 대구 광덕사(가창담 옆)
 - ◇ 문 의 : 종무소 ☎ 053)763-0068, 767-2266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190-2